

연중 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아이들이 현종스님과 한자리에 모였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아이들은 늘 웃음을 잃지 않는다.

22명 아이들 돌보는 상주 호암사 현종스님

"계절 바뀌니 옷 걱정이..."

경북 상주 호암사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인사를 건넨다. 조그만 몇 명의 낯은 건물로 된 호암사에는 5살, 6살 꼬마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과 공양주 보살, 그리고 현종스님 등 22명의 대가족이 살고 있다.

품앗이로 가족들 봉양

11년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현종스님은 점점 늘어나는 가족으로 한동안 참기름과 배추 장사를 하거나 품앗이로 농사일도 해가며 가족을 봉양해 왔다. 나중엔 도반들 찾아가서 5만원, 10만원씩 후원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빛이요, 특히 IMF 후환자가 독골졌을 때는 장사를 해서 근근이 버텼습니다.

그러나 어렵게 고비를 넘기고 하나 둘 늘어나 후원이 덕분에 먹고 사는 걱정을 한사를 놓았다 싶자 지난해 9월, 화마가 덮쳤다. 법당과 창고, 여자아이들 거처가 누전으로 전소됐고 옷가지와 식료품과 화용품이 모두 타버렸다. '아이들이 등교한 후라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에 감사한다'는 현종스님은 이후 어렵게 조립식 건물을 다시 짓고 여학생 거처를 다른 동으로 옮겼다.

어려운 내색을 하지 않으려는 스님은 달리 11년째 살림을 맡고 있는 이숙연(55) 공양주 보살은 걱정이 많다. "계절이 바뀌니 옷이 걱정이예요. 가끔 입던 옷을 후원받지만 아이들 옷은 별로 없어요. 수저, 그릇, 화용품도 모

두 부족하죠. 식구가 많으니 위생을 위해 식기소독기도 있어야 하고, 또 세탁기도 고장이 났고..."

공양간의 소소한 걱정거리는 스님에게 부담될까봐 스스로 해결한다는 이 보살은 "동네 사람들이기에 신세 많이 진다"며 웃었다.

막일 것, 입일 것 걱정이 태산 같아도 이 보살은 "아이들이 착해서"라는 말을 모든 걱정 뒤에 빼놓지 않았다. 미술에 남다른 재주를 보이는 윤희아, 피아니스트가 꿈인 정현이, 요리사를 꿈꾸며 공양간 일을 끝질 도우는 순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타오는 동현이. 착한 아이들을 보며 현종스님이나 공양주 보살은 잠시 어려움을 잊는다.

동네사람 신세 많이 저

"인연된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것으로 내 일생의 할 일을 다하는 것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현종스님. 스님은 장차 아이들을 위해 생활권 건립 계획을 세워두고 부지를 마련했다.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훗날 아이들 마음 깊은 곳에 부처님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족 사랑의 완성이라 믿는 까닭이다.

후원 방법: 계좌 609-24-0113-454(국민은행) 예금주 심만희
전화: (054)541-7863 상주=천미희 기자

4월 10일 (수)

■법륜 스님 '반야심경' 강좌=반야심경의 공(空)사상을 일상생활에서 발견해 볼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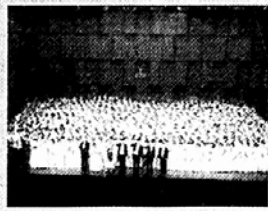
이번 법륜 스님의 전국 순회강연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서울 서초구 정자동 관에서 열리며, 부산 대구 대전 등 각 지역 정토행당에서도 열린다. 무료강의. (02)587-8994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 대법회=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 은 오후 4시부터 정각원 법당에서 전 조계종 교육원장 압도 스님을 초청, '바르게 잘 살기'라는 주제의 법회를 봉행한다. (054)770-2016

4월 11일 (목)

■삼보불교음악협회 '천불가집 발

신행 캘린더



◇지난해 열렸던 삼보불교음악회.

간기법음악회=신도용 천불가집 발간을 기념해 불자들이 펼치는 아름다운 화음의 세계. 태고종연 합창창단, 천태종연합창단 등이 참가해, '법종' '공신공체' 한마음 있음에 '우리로 부처님 같이' 등 불음(佛音)을 들려준다.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입장은 무료. (02)723-0440

4월 13일 (토)

■동산반야회 '성지순례'=국보 17호 부석사 석등, 18호 무량수전, 45호 소조여래좌상, 그리고 회방폭포... 수많은 성보들을 간직하고 있는 천년고찰 부석사와 회방사로 떠나는 이번 여행의 출발은 저녁 9시 서울 견지동 동산반야회 앞. 참가비 4만원. (02)732-1206

■양정청소년수련관 '무로영화' 상영=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토요일 오후 3시 수련원 7층극장에서 무로영화 상연한다. 13일에는 최근 화제적인 '달아날자'가, 27일에는 '라스트캐슬'이 상영된다. (051)868-0750

■경기불교대학 '지관스님 초청법회'=경기불교대학은 지관 스님 초청 법회를 오전 10시 수원포교

당 내 불교문화원에서 봉행한다. 가산불교문화원장인 지관 스님은 30년 동안 불교학 연구와 후진 양성 등 한국불교에 큰 족적을 남긴 대표적 학승. 스님의 학문적 습격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듯. (031)255-2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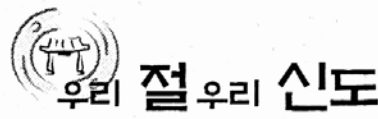
■티사랑 '성지순례'=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불보사찰 통도사 방문과 우리나라 최대 비구니 강원이 있는 운문사에서의 새벽예불...

출발은 저녁 9시 30분 안국역 4번 출구. 참가비는 5만 5천 원. (02)725-1234

4월 16일 (화)

■두레생태기행 '남산 생태답사'=원구단, 와동묘, 한옥마을, 장충단, 수표교, 서울성곽...

부처님 말씀 액자담아 보시 30년



진각종 탑주심인당 박성은 신도회장

지난 1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탑주심인당(주교 도훈) 진각종의 총본산인 총인원 한 가운데에 자리 잡은 심인당(진각종의 법당)에 벌써 3시간 째 미풍도 하지 않은 채 한 노보살이 가부좌를 틀고, 염송(念誦)을 하고 있다. 바로 탑주심인당 신도회장 박성은(64·행원심) 보살.

40년 넘게 매일 새벽 정진은 물론이고, 매일 월초불공매월 첫째 주 동안 하는 불공에, 매년 49일 불공까지 빠짐없이 수행생활을 해온 박 보살은 심인당이 '진정정' 같다고 말한다. 박 보살에게 이곳이 남다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곳에서 어려울 때마다 스스로를 다지고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30년 전부터 부처님 말씀을 담은 액자를 신도들에게 무상보시 해온 박 보살은 96년 진각종 종립 위덕대학교 설립 당시 거금을 쾌척하는가 하면, 열일 제쳐 두고 인근 복지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정도로 어려운 이웃 돕는데도 앞장서 왔다. 지난해 말부터는 신도회 내 자원봉사 소모임

인 '바라밀회'를 결성, 매주 수요일이면 차매주간보호소인 '진각차매노인센터'를 찾아가 목욕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어려운 도반을 남몰래 찾아가 쌀 가마니를 두고 와 '그림자 보살'로 불리고 있는 박 보살. 그에게는 '나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정직하게 살자'는 자원봉사 지론이 있다. 이 같은 지론은 수행생활과 자원봉사 활동 면면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왔다. 게다가 가정불화를 겪는 신도들의 인생 상담까지 도맡고 있다. 열마진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효암)으로부터



◇차매노인들과 함께 차매치료프로그램인 '공고르기'를 하고 있는 행원심 보살 (사진 맨 왼쪽).

"나부터 바르고 정직하게, 이타행의 삶..."

사위·며느리 모두 불자... '행원심 사단'

터 공로패를 받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박 보살이 신도들로부터 신앙을 받은 이유는 또 있다. 박 보살 가족이 모두 신심 깊은 불자라는 점이다. 남편 김진열(68·현운, 신원통신 대표이사) 씨는 사업일로 바쁜 중에도 빠짐없이 매주 일요일 자성일 불사법회 시간을 지키는가 하면, IMF 경제 위기 당시 심인당 내 사업에 실패한 신도에게 선뜻 사업 자금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부부의 모범적인 수행 생활은 이미 신도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곤 한다.

이뿐만 아니다. 1남1녀 자식들은 물론, 사위와 며느리까지 법명을 받았다. 큰 딸 구리(35) 씨는 원명정, 아들 용식(33) 씨는 덕성, 며느리 박옥(32) 씨는 정정수, 사위 권건록(36) 씨는 해명이라는 법명으로 수행생활에 열심이다. 때문에 신도들은 이들 대가족을 '행원심 사단'이라고 부른다. 박성은 보살의 도반 범상계 보살은 "며느리는 물론, 사위까지 불심을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불자인 집안은 보기 드물 겁니다. 박 보살님의 깊은 신심이 가족을 부처님 울타리에 살게 한 거죠. 이들 가족의 수행은 심인당의 자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라며 힘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최근 들어 박 보살은 큰 원을 세웠다. 올해, 진각종을 창종한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총금강회

추천의 말

도훈 탑주심인당 주교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이것이 진각종 수행의 핵심입니다. 법신 비로



자나 부처님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이를 믿음의 뿌리로 삼고 생명으로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행원심 박성은 보살은 끝없는 수행으로 심인당의 한 구석을 변함없이 지키는 지킴이입니다. 항상 진언수행을 생활화, 체질화, 습관화해 언제 어디서나 수행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남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앞장서 도반들의 모범이 되는 분입니다.

또 행원심 보살의 온 가족은 불자가족공동체 구현을 위한 '전가족 제도' 운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년에 종조탄생 100주년을 맞아 우리 탑주심인당에서도 많은 행사를 준비 중인데, 행원심 보살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주어 본격적으로 행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회 연합회)가 추천하는 '좋은 인(因)을 지읍시다!'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생각이다. 박 보살은 100주년 기념사업의 정신이 '참어, 화합, 회향'인 만큼, 내가 먼저 앞장서 참여하여 모든 신도들과 화합해 다 함께 나누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a.com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수행의 지침서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지금 이 순간의 고난과 그릇된 마음을
향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공부를 잘 성취하고자 하십니까?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 큰스님께서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마음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시어 우주에 가득한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

- 한글 번역의 문체가 아름답습니다.
- 심오한 금강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 일상생활과 접목시켜 강설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능히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감동을 주는 일화들을 많이 삽입하여 재미를 더했습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는가?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수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우룡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불자의 마음 기쁨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 염불, 간경, 주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양미묘다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된 삶 속에서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주옥 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윤희와 인과응보 이야기

과연 인간은 윤희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보면 윤희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진수경 전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진수경에 대한 강설집. 경에 숨겨져 있는 참뜻, '진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존재전인, 여러 시대법문문과 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어, 불자들을 깨달음으로 안내하는 좋은 지침서가 됩니다. 혜국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시적이는 마음

보조국사의 <조선>을 일타 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이 엮은 책.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강>을 일타 큰스님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지기를 돌이보는 마음

<자경문(自警文)>은 아흔스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 가는 속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발견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것이다.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따듯한 말씀으로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비추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게 강설적으로 엮은 오분항 예불문의 해설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던 모든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사실, 그 속에 깃든 의미

제 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초입(初)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事物), 석등, 담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짚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수와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육바라밀 수행법

특별한 수행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의 성분을 보장하는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번야의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해 그 정신과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서술했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책. 지장경 특경 및 지장보살에 관한 지장법문을 한 때 가장 앞에 제시된 기도방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비 속에서 들림 없이 영가친도 업장소멸 소원성취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